스포츠동아 창간 13주년·프로야구 개막 1000만원어치 야구용품 타기 퀴즈 잔치

“이름 새긴 글러브·배트 등 최고급 야구용품 받으세요”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야구용품타기 독자사은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퀴즈 5개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20명을 추첨해 프로선수용 글러브, 배트 등 야구용품(1인당 50만 원 상당)을 선물합니다. 특히 글러브에는 당첨자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우편엽서에 총 5문항의 정답을 적고, 신문 오른쪽 하단의 응모권을 붙여 스포츠동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Q1. 2021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 아닌 인물은 누구일까요?
①키움 홍원기 감독 ②롯데 허문회 감독 ③LG 류지현 감독 ④SSG 김원형 감독

Q2. 다음 중 한국시리즈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NC 나성범 ②SSG 추신수 ③삼성 오승환 ④SSG 최정

Q3. 2020시즌 프로야구 도루왕은 누구일까요?
①삼성 박해민 ②키움 김혜성 ③NC 박민우 ④KT 심우준

Q4. 다음 중 신인왕 출신이 아닌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KIA 최형우 ②LG 김현수 ③키움 오주원 ④NC 양의지

Q5. 다음 중 프로야구단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은 어디일까요?
①인천 ②성남 ③부산 ④광주

●응모요령 : 정답이 하나라도 틀리거나 응모권이 없으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엽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접수만 가능.
●응모마감 : 4월 16일(금)까지 본사 도착 엽서 중 20명 추첨
●당첨자 발표 : 4월 23일(금)자 스포츠동아 지면
●상품 : ILB(구 MAX스포츠)가 제조한 프로선수용 글러브 및 배트 등 5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야구용품
●보내실 곳 : (0373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9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10층
●문의 : 02-361-1633
●협찬 : ILB

응모권

동행복권

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2,084명 신규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총 2,084명(예비후보자 798명)
○ 모집대상 :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1)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모집지역 :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모집인원 : 모집 공고문 [별지] 확인
○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www.dhlottery.co.kr) 내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1년 4월 16일 10시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Lotto 6/45 958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21 년 04월 10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9	10	16	35	37	1

1등 총 당첨금 2,394,795,125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5	1,596,119,67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0%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67	59,556,70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470	1,615,50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31,097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2,168,146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

사상 첫 순수 야수 2명 마운드에 올린 한화 수베로 감독의 소신

“1 대 14땐 필승조 아껴야…상식적인 운용”

투수 경험 있는 강경학·정진호 등판
“매경기 접전 불가능…시즌은 길다”
적장 김태형 감독도 “충분히 공감”

한화 수베로 감독

“상식적으로 가능했던 운영이다.”

한화 이글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11일 대전 두산 베어스전을 앞두고 야수 2명을 마운드에 올렸던 전날(10일) 경기(1-18 패)를 돌아보며 소신을 밝혔다.

상황은 이랬다. 수베로 감독은 1-14로 뒤진 9회초 내야수 강경학을 마운드에 올렸고, 이닝을 쉽사리 끝내지 못하자 외야수 정진호까지 등판시켰다. 한 경기에 야수 2명이 마운드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야구통계전문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한 팀에서 야수 2명이 등판한 사례는 KBO리그 역대 3번째다. 종전 사례는 1985년 4월 17일과 5월 15일 MBC 김정수와 안언학이 해태전과 OB전에 등판한 것이다.

그러나 둘은 그해 투수로 60이닝(김정수), 15이닝(안언학)을 소화했던 터라 순수 야수 2명이 마운드에 오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기용을 놓고 일각에선 정규시즌 경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11일 경기를 앞두고 수베로 감독의 입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수베로 감독은 확신에 찬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어제(10일)와 같은 경기에서 강재민, 김범수, 김진영 등 필승계투조를 쓸 순 없다. 다음날 경기가 있었고, 점수차도 커서 불펜을 아껴야 했다”며 “향후에도 불펜을 아끼기 위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14를 뒤집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며 “(11일) 카펜터가 선발등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그런 운영은 가능했다. 매 경기를 접전으로 치를 순 없다. 시즌은 길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많은 야수들 중 강경학과 정진호를 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수베로 감독은 먼저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했다. 그는 “사실 가장 두려운 게 부상이었다”며 “야수들 몇 명에게 ‘투수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고, 강경학과 정진호, 최재훈이 ‘가능하다’고 했다. ‘무리하지 말고 스트라이크만 던지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학은 “어깨는 아주 멀쩡하다. 감독님께 ‘가운데 던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중학교 이후로 투수는 안 해봤다. 투수를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기에 ‘필요하다면 하고 싶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에피소드도 있었다. 강경학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0km까지 나왔다. 수베로 감독은 경기 후 강경학에게 “다음에는 그리 세게 던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강경학은 “언제 올라가서 던져보겠나 싶어 흥분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제대로 못 던져서 미안했다”며 “좋은 추억을 남겼고, 수비를 할 때도 투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본래 포지션이 야수라서 그런지 타구에도 반응하게 되더라. (정)진호 형은 이닝을 마무리하고 투수 기념구까지 챙겼더라”며 웃었다.

적장인 두산 김태형 감독도 불펜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는 “점수차가 큰 상황에서 필승계투조가 마운드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야수가 올라가서 던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에선 오재원이 ‘내가 가장 먼저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대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10승’ 임찬규 13일 복귀 LG 마운드 더 단단해진다

이민호 등 이탈 자원 속속 복귀
‘선발 ERA 1.56’ 압도적 1위 LG
함덕주까지 살아나면 리그 최강

말 그대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 더해진다. 지난해 토종 선발 중 유일하게 10승을 거둔 자원이 함께 출발하지 못했음에도 개막 7경기에서 선발 평균자책점(ERA) 1위에 올라있다. 여기에 이탈했던 자원들의 복귀도 임박했다. LG 트윈스 마운드가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LG는 11일까지 7경기에서 5승2패를 거뒀다. 타선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승조의 부하가 적잖았고, 2패는 모두 뒷심에서 밀렸다. 그럼에도 순위표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연 선발진이다. 7경기에서 34.2이닝을 합작하며 ERA는 1.56에 불과하다. 선발 ERA는 압도적 1위다.

아직 시즌 초반인 까닭에 평균 이닝 소화가 아쉽고, 선발승은 앤드류 수아레즈(2승)가 전부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계산을 세워줬다는 점에서 제 역할은 충분히 했다. 시즌 전부터 탄탄한 선발진으로 꼽혔는데 지금까지는 기대이상의 성과다.

여기에 출발이 다소 더뎠던 자원들도 돌아온다. 류지현 LG 감독은 11일 잠실 SSG 랜더스전에 앞서 “임찬규와 이민호가 다음주 등판한다”고 밝혔다. 임찬규는 지난해 27경기에서 10승9패, ERA 4.08을 기록했다. 생애 두 번째 10승. 다만 이닝 부담이 많았던 탓에 스프링캠프부터 스타트가 조금 늦었다. 2군에서 충분한 담금질을 거친 만큼 투구수는 보통의 선발투수만큼은 가져갈 수 있다. 지난해 ‘10일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4승4패, ERA 3.69를 기록한 이민호의 복귀도 천군만마다. 임찬규는 13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 선발로 나서며, 이민호의 등판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임찬규

2연속 5이닝 투구에 그친 케이시 켈리의 컨디션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나아질 터다. 기존 정찬헌에 ‘예비 자원’ 김윤식까지 건재를 증명했다. 수아레즈는 2경기에서 이미 KBO리그 최강 외인이라는 평가에 걸맞은 투구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첫 등판에서 3이닝 3실점에 그쳤던 함덕주까지 살아난다면 LG 선발진은 양과 질 모두 리그 최강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잠실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신민재 “내가 빨랐어” SSG 이재원이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전에서 5회초 2사 1루 상황 때 2루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결과는 아웃. LG 2루수 신민재(오른쪽)의 태그가 조금 더 빨랐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두산 최원준, 아깝다 시즌 첫 승

한화전 5이닝 1실점에도 노디시전
2회 실점위기 봉쇄…경기운영 ‘굿’

두산 베어스 우완투수 최원준(27)이 올 시즌 2번째 선발등판에서 잘 버텼지만,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최원준은 11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6안타 3볼넷 4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계투진이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시즌 첫 승에는 실패했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ERA)은 2.08에서 1.93(9.1이닝 2자책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날 최원준은 최고구속 143km의 직구(50개)와 슬라이더(24개), 체인지업(17개), 커브(1개)를 섞어 총 92구를 던졌다. 스트라이크 비율도 66.3%(61구)로 준수했다.

두산 최원준

매회 주자를 내보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뽐내며 5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특히 2회 무사 1·2루, 4회 1사 1·2루의 실점 위기를 봉쇄하며 경기운영 능력이 한 단계 발전했음을 증명했다. 2-0으로 앞선 5회 선두타자 노시환에게 좌전안타를 맞고 남호에게 공을 넘긴 최원준은 이후 계투진이 동점을 허용한 탓에 승리가 날아갔다.

한편 최원준은 지난해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42경기(18선발)에 등판해 10승 2패, ERA 3.80을 기록했다. 올해는 풀타임 선발투수로 업그레이드를 노린다.

대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